

1930년대 학술지 『한글』과 『정음』에 사용된 월의 문체적 특성*

안 예리 · 김 선영

— 차례 —

- | | |
|-------------------|----------------|
| 1. 머리말 | 5. 메타 술어로서의 용법 |
| 2.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론 | 6. 맺음씨끝의 실현 양상 |
| 3. 임자말의 실현 양상 | 7. 결론 |
| 4. 풀이말의 실현 양상 | |

〈버리〉

이 연구는 1930년대 국어학 학술지인 『한글』과 『정음(正音)』에 사용된 월의 문체적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자말·풀이말의 실현 양상, 메타 술어, 맺음씨끝의 실현 양상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동시대의 소설에 나타난 월의 특성 혹은 오늘날의 학술지에 나타나는 월의 특성과 비교함으로써, 그것이 특정 텍스트 양식에 따른 것인지 당시의 일반적인 양상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임자말의 경우 저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임자씨의 사용이 특징적이었으며, 구체적인 임자씨 목록에 있어서는 두 학술지가 다른 경향을 보였다. 풀이말에 대해서는 고빈도 풀이말을 중심으로 개개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이중 부정의 잦은 쓰임 등 특징적 현상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또한 메타 술어의 쓰임을 기능별로 살펴보고 오늘날 학술지의 메타 술어와 비교함으로써 학술적 글에 사용된 메타 술어가 지난 80여 년 간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맺음씨끝의 분포를 살펴보고, 두 자료 간의 맺음씨끝 사용 양상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각 학술지의 개별 문체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한글, 정음, 학술지, 월, 문체, 1930년대.

* 이 글은 2009년 7월 8일, 뉴질랜드 웰링턴의 빅토리아 대학(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에서 열린 제18회 NZASIA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서론

근대적 학문이 태동하던 20세기 초기, 즉 약 100여 년 전의 글들을 읽다 보면 그 뜻을 이해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표현이나 월을 만드는 방법 등에 있어서 어딘가 오늘날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 연구는 익숙한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경한 그 느낌이 언어 사용 양상의 어떤 차이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특히 1930년대의 국어 연구 학술지인 『한글』과 『정음(正音)』에 사용된 월들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¹⁾. 『한글』은 주 시경의 후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조선어 연구회의 기관지로 1932년에 창간된 이래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으며, 『정음』은 박 승빈을 주축으로 한 조선어학연구회의 기관지로 1934년부터 1941년까지 발행되었다. 이 시기는 국어학 연구 분야에서 서로 다른 문법관을 가진 학파 간에 활발한 논쟁과 토론이 있었던 시기이다²⁾. 그리고 『한글』과 『정음』은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을 펼치며 치열하게 대립하였던 대표적인 학술지이다. 이 연구가 두 학술지에 사용된 월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자료를 통해 근대 학문이 태동하던 초창기의 학술적 글, 특히 논설적 글에 사용된 월의 문체적 특징을 밝히려는 목적 때문이다.

-
- 1)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문법 용어들은 최 현배(1937)의 용어를 따른다.
 - 2) 김 석득(1983 : 184~185)에서는 1910년대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시기를 최근대 국어학의 시기로 보았는데, 갑오경장 이후 1910년까지의 근대적 국어학이 분석주의적인 관점에 선 반면, 최근대 국어학에서는 분석주의와 더불어 통합주의가 등장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전통적 학문에서 서구식의 근대적 학문으로의 전환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 김 근수(1973: 16~17)에 따르면 1896년 2월에 창간된 『친목회 회보』가 모체가 되어 1910년까지 각종 단체의 학회보와 잡지가 44종에 이르렀다고 한다³⁾. 그런데 이들 초창기 학회보들에 실린 글은 저자의 주장을 펼치는 논설문이 아니라 주로 설명문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한글』이나 『정음』과 구별된다. 『대한홍학보』(1909~1910) 등에 실린 구한말 학술적 글에 대해 분석한 김 지영(2006: 344)에서는 구한말 학술적 글의 성격에 대해 “신지식을 단순 소개하는 데 치중하고 있었던 만큼 글들은 대체로 설명문의 형식을 띤다.”고 분석한 바 있다. 1910년까지의 학술적 글들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 성과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반면, 1930년대의 『한글』과 『정음』은 보다 본격적인 학문적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구한말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학술적 글 쓰기 양상을 보여준다⁴⁾.

이 연구는 『한글』과 『정음』에 사용된 월의 문체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이는 1930년대의 학술적 글이라는 특정한 장르에 있어서 월을 이루는 방식이 오늘날의 학술적 글과, 또한 당대의 다른 장르의 글과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월의 문체적 특징을 임자말, 풀이말, 맺음씨

3) 『친목회 회보』(1896~1897), 『서우』(서북학회 월보)(1906~1910), 『태극학보』(1906~1908), 『기호홍학회 월보』(1908~1909), 『대한유학학회 월보』(1907), 『호남학보』(1908~1909), 『대한홍학보』(1909~1910) 등이 있다.

4) 1930년대 문체 분석에 대한 연구로 문 혜운(2008)을 들 수 있다. 문 혜운(2008: 24)에서는 “현재 언어생활의 근간은 1930년대에 이룩되었다.”고 하며 1930년대의 어문 운동과 문학 작품의 문체에 대해 논의하고 1930년대의 표준어 정비 과정, 작가들의 문체에 대한 고민, 서로 다른 학파 간의 어문 정책에 대한 활발한 토론 등이 현재의 언어생활에 미친 결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끝의 특성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고, 풀이말과 관련된 메타 술어로서의 용법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김 형철(1997 : 61)에서 언급한 “문체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요소”인 문체소(文體素)의 일종으로서 구문 요소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인 것이다⁵⁾.

두 학술지에서 서로 달리 나타나는 특성은 두 개별 학술지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즉 그 특성이 당시 학술적 글이라는 장르 개별적인 독특한 문체일 가능성과 그 당시 국어의 일반적인 성격이었을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두 학술지와 동시대에 간행된 1930년대 소설 말뭉치를 비교와 대조를 위한 보조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론

2.1. 『한글』과 『정음』의 연구 자료로서의 성격

이 절에서는 1930년대 『한글』과 『정음』의 연구 자료로서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김 석득(1983 : 414)의 설명을 인용하면 (1)과 같다.

5) 김 형철(1997 : 61)에서는 “문체소에는 크게 나누어 표기 요소, 어휘 요소, 구문 요소 등이 있다.”고 하며, 김 형철(1997 : 62~63)에서 “구문 요소는 표기 요소나 어휘 요소와는 달리 분석을 통해서 변별이 가능한 것으로 문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구문 요소에는 어순, 문장 길이, 종결어미, 중복 표현, 그 밖의 통사적 문형 등이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 (1) “박 승빈 님은 비록 분석주의 체계를 이룩했지만 정통적인 말본 체계와는 아주 다른 특수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주 시경 님의 체계를 부당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주 시경 님 후계 학자들과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다. 그는 당시 ‘조선어학연구회’를 조직하고 기관지 『정음』(正音)을 간행하여, ‘조선어학회’의 기관지 『한글』지와 치열한 논전을 벌인 바 있다. 주 시경 님과 그 후계 학자들의 학설의 종합적 결과로 마련된 「맞춤법 통일안」(1933)과 박 승빈 님의 체계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의 논전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실제로 두 학술지에 등재된 글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서로의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된소리 표기에 대한 논쟁 양상의 예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1934년 2월 『정음』 창간호에 정 규창의 「硬音記寫에 對하여」라는 글에서는 “至極히 簡便한 方法 된시옷을 버리고 複雜하고 不便한 字形 雙書式을 無理로 使用하려함은 아나크로니즘(時代錯誤)도 이에 더 甚한 것은 업스리라”고 하여 조선어학회에서 된소리 표기로 각자병서를 택한 것을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1934년 4월 『한글』 제11호의 「부질없는 수작」에는⁶⁾ 정 규창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글이 실렸고, 1934년 6월 『정음』 제3호에 또다시 정 규창의 「부질없는 수작」 作者에게 答함이라는 반박 글이 실렸다. 이처럼 『한글』과 『정음』 간에는 특정 주제에 대한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의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져 필자의 주장이 뚜렷하게 드러난 논설적 글로서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

6) 『한글』 제11호(1934. 4. 간행)부터 제14호(1934. 7. 간행)까지 4회에 걸쳐 일반 학술적 글들과는 별도로 ‘부질없는 수작’란이 마련되었다. 다른 글들과는 달리 저자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정음』에 실린 글에 대한 비판이나 ‘철자법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료이다.

2.2. 말뭉치의 구축과 분석 과정

이 글에서는 1930년대 학술적 글에 사용된 월을 분석함에 있어 분석 대상 요소들의 분포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동시에, 하나하나의 용례에 나타난 용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말뭉치를 이용한 계량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한다. 계량화된 분석 결과를 통한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며, 동시에 질적 연구의 결과가 전체 언어 자료 속에서 갖는 위상과 가치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⁷⁾. 뿐만 아니라 계량적 분석 자료는 질적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연구 방법론은 오늘날 모어 화자의 직관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과거의 언어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 필수적이다.

본 연구자들은 1930년대 『한글』과 『정음』에 실린 글을 하나 하나 읽어가며 표본을 선정하고 이를 직접 컴퓨터로 입력하여 수작업으로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이 절에서는 말뭉치의 구축을 위한 표본 선정과 표본 추출, 주석, 분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간략히 기술하겠다.

먼저 표본 선정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 『한글』과 『정음』에 실린 글 중에 『簡易朝鮮語文法』 등 문법서를 여러 호에 나누어

7) 어떤 월에서 특정 표현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분석은 그것이 특정 저자의 글 쓰는 방식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 특정 학술지에서 선호되던 문체 때문인지, 아니면 학술적 글이라는 특정 텍스트의 특징인지, 혹은 당시의 언어가 전반적으로 그러했던 것인지에 대한 설명, 즉 전체 자료 속에서 특정 언어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망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실은 것이나 『훈민정음 언해본』과 같은 고문을 실은 것, 외국의 책을 번역하여 실은 것은 제외하였다. 또한 학회의 규칙이나 강령, 창간사, 편집후기 등의 행정적인 글 역시 말뭉치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한글』의 경우는 학술지였다 하더라도 독자층을 일반 대중으로 폭넓게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설이나 시, 짧은 이야기 등이 실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문예물도 표본에서 제외시켰다. 다시 말해 『한글』과 『정음』에 실린 글 중에서도 국어 연구와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해 쓴 논설적 글만을 선정하여 입력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선정된 글이라 해도 글 전체를 입력하지 않고 그 중 일부만을 추출하여 입력하였는데, 이때 추출의 기준이 된 것은 저자의 주장이 분명히 드러나는 서론과 결론이다. 글에 따라 서론, 본론, 결론이 명시적으로 구분된 경우도 있지만 서론과 결론 중 하나만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나⁸⁾, 아예 서·본·결의 구조가 없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본·결이 명확한 글은 서론과 결론을 입력하고 출전 표시의 끝에 ‘(서)’와 ‘(결)’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서론과 결론이 명시되지 않은 글은 첫 문단과 끝 문단을 입력하고 출전에 ‘(첫)’과 ‘(끝)’으로 표시하였다⁹⁾.

『정음』에 실린 글들은 모두 국·한 혼용으로 작성된 데 반해 『한글』에 실린 글들은 일부는 국·한 혼용, 일부는 순 한글, 일

8) 본문에서는 편의상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오늘날의 일반화된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1930년대 자료에서 서론은 ‘序言, 緒言’ 등으로, 결론은 ‘結論, 끝마는 말’ 등으로 표현되었다.

9) 추출된 표본을 입력하는 과정에서는 괄호(< >) 속에 출판 연도와 학술지 이름, 호수, 저자 이름, 서론인지 결론인지 혹은 첫 단락인지 끝 단락인지 대한 정보를 넣어 <1932-한글001-최현배(서)>와 같이 출전을 표시하였다.

부는 순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입력 과정에서는 이러한 원문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여 입력했으며, 그 결과 <한글말뭉치>는 총 6,001 어절, <정음말뭉치>는 총 3,916 어절이 구축되었다.¹⁰⁾

입력된 말뭉치에 문법적 정보를 주석하기에 앞서, 이 연구에서 기준이 되는 계량적 단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월의 특성, 특히 임자말, 풀이말, 맺음씨끝의 특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보통의 말뭉치 기반 연구들과 달리 어절이 아닌 월을 분석의 계량적 단위로 삼아야 했다. 그런데 연구 대상 자료에 나타난 대부분의 하나의 월 안에 여러 마디(clause)들이 포함된 겹월이었는데 하나의 임자말과 하나의 풀이말을 갖는 월갈의 단위로는 월보다도 마디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겹월의 구조를 살펴보면 마디가 하나 포함된 겹월도 있지만, 허웅(1999: 989)에서 ‘이음과 안음의 소용돌이’라 한 것처럼 여러 개의 마디가 복잡한 계층을 이루며 서로 엉켜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마디를 기준으로 삼는다 해도 월 안에서 모든 마디들이 대등한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겹월을 분석할 때 가장 상위에서 1차적으로 분석되는 맞선 마디를¹¹⁾ 분석 기준 단위로 삼고¹²⁾, 임자마

10) 이 연구에서 사용한 <한글>, <정음> 말뭉치는 계량적 연구를 위해서는 그 규모가 극히 작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1930년대 말뭉치 구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연구자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말뭉치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로 인한 것임을 밝혀 둔다. 다만 적은 자료로나마 학술적 글이라는 특정 장르에 사용된 월의 문체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월의 문체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 방법론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자료의 규모로 인한 문제는 향후 보다 완전한 말뭉치를 통해 검증해야 할 것이다.

다, 풀이마디, 매김마디, 어찌마디와 같이 월 안에서 보통의 임자씨, 풀이씨, 매김씨, 어찌씨 들의 기능을 담당하는 마디들은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¹³⁾. 1차 분석 맞선 마디를 기준으로 말뭉치의 규모를 살펴보면 <한글말뭉치>는 769개의 1차 분석 맞선 마디, <정음말뭉치>는 574개의 1차 분석 맞선 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3. 임자말의 실현 양상

임자말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생략되어¹⁴⁾ 월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¹⁵⁾. 이는 임자말의 생략이 빈번히 일

-
- 11) “맞선 마디(對立節)란 것은 앞뒤 마디가 서로 동등의 가치를 가지고 마주선 것을 이름이니, 맞선 마디의 풀이말인 풀이씨는 이음법으로 됨이 그 보람이니라.”(최 현배, 1937/1961 : 742)
- 12) 아래의 예에서 ▲는 하나의 월에서 1차 분석 맞선 마디로 끊어지는 경계를 보여준다.
- 예1) 그러나, 연구자들이 뜻이 없음도 아니었고, ▲ 조선어 학회가 그 짐을 지지 아니함도 아니었다. ▲ <1932-한글001-이상춘(서)>
- 예2) 機械工業과 가튼 것은 人智가 發達할수록 複雜化하야디고 ▲ 儀式文字와 가튼 것은 時代가 推移할수록 簡單化하야딘다. ▲ <1934-정음05-권영희(첫)>
- 예3) 짜라서 된사움을 업새고 雙書式으로 改革하자는 說에는 極力反對한다. ▲ <1934-정음01-정규창(서)>
- 13) 즉 이 연구에서 언급되는 임자말, 풀이말, 씨끝의 수치는 모두 1차적으로 분석된 맞선 마디의 임자말, 풀이말, 씨끝에 대한 것이다.
- 14) 임자말의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생략’인가 ‘비실현’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문장에 명시적으로 실현된 임자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생략과 비실현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 15) 전체 분석 대상 마디에서 임자말이 나타난 경우는 <한글>의 경우 전체 분석 대상 마디 중 60%, <정음>의 경우 58.7%로, 약 절반 가량은 임자말이 실현되고 나머지 절반 가량은 생략된 것이다.

어나는 국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보다 1930년대 『한글』과 『정음』의 임자말 실현 양상에서 특징적인 점은 학술적 글임에도 불구하고 저자 자신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임자씨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한글>은¹⁶⁾ 실현된 전체 임자말 중 5.9%, <정음>은 9.8%에서 첫째 가리킴(1인칭)의 임자씨가 임자말로 쓰였다.

저자 자신을 나타내는 임자말에는 ‘나, 필자, 오인, 여, 스사로’ 등의 임자씨가 사용되었는데, 이때 두 학술지 간의 차이가 있었다. 『한글』은 (2)에서와 같이 주로 ‘나’를 썼고 『정음』은 (3)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筆者’를 썼다. 이는 『한글』에 실린 글의 대부분이 순 한글로 작성되었고 『정음』은 모두 국·한 혼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 (2) ㄱ. 나는 한글 글씨의 體法을 찾는 同時에, 이와 같은 모든 文字를 發見한 것을 매우 유쾌하게 생각한다. <1932-한글001-김극배(끝)>
- ㄴ. 그러나, 나는 成年을 相對로 하는 이 新聞 雜誌 같은 것은, 오히려 重要視하지 않는다. <1932-한글001-이호성(서)>
- ㄷ. 나는 國際音標文字(International Phonetic Symbols)를 쓰겠다. <1933-한글009-김선기(서)>
- (3) ㄱ. 그런데 筆者는 이 問題에 對하여 된시옷을 使用하는 傳統的 記寫法을 復舊시키고 統一시키자는 論에 贊成하는 一人이다. <1934-정음01-정규창(서)>
- ㄴ. 그러므로 筆者는 ‘한글마춤법통일안’이라기보담 차라리 ‘한글마춤법뒤죽박죽안’이라는 것이 妥當할 줄로 생각한다. <1934-정음01-임규(끝)>
- ㄷ. 故로 筆者는 한글派 諸氏와 및 그들을 따라서 소그라고

16) 앞으로 <한글말뭉치>는 <한글>로, <정음말뭉치>는 <정음>으로 표기한다. 이는 학술지 자체를 의미하는 『한글』, 『정음』과 구별된다.

하는 多數 人士에게 向하여 속디 말라고 부르짖는 바이다.
<1934-정음03-석운생(끝)>

임자말로 쓰인 첫째 가리킴 임자씨의 종류와 사용 빈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글>에서는 ‘나’가 전체 첫째 가리킴 임자씨들 중 77.8%에 해당되는 21회, ‘筆者’가 5회¹⁷⁾, ‘生’이 1회 사용되었다. 한편 <정음>에서는 ‘筆者’가 18회 쓰여 54.5%를 차지했고, ‘吾人’이 6회, ‘나’와 ‘僕’이 각각 3회씩, ‘余’가 2회, ‘스사로’가 1회 사용되었다. (4)는 ‘吾人’, ‘僕’, ‘余’의 용례이다.

(4) ㄱ. 그 歴史的 記寫法에 當하여서는 吾人이 잘 아으는 바임으로 <1934-정음02-박승도(서)>

ㄴ. 僕은 諸氏를 爲하여 가만히 恐懼함을 마으디 안는 바이다.
<1934-정음04-무명(끝)>

ㄷ. 余는 우리 諺文이 배호기 어렵고 쓰기 어렵고 보기 실케 退化되야가는 것을 惜歎하야 <1934-정음02-윤치호(끝)>

2회 이상 나타난 임자씨는 그것이 특정한 저자의 글에서만 쓰였는지, 여러 저자의 글에 두루 쓰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글>에서 가장 많이 쓰인 ‘나’와 <정음>에서 가장 많이 쓰인 ‘筆者’는 각각 여덟 명, 일곱 명의 서로 다른 저자의 글에서 두루 나타났다¹⁸⁾. 그리고 <정음>에서 6회 쓰인 ‘吾人’도 네 명의 서로 다른 저자의 글에서 발견되어 그 쓰임이 특정 개인의 문체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僕’이나 ‘余’는 모두 동일한 저자의 글에서만 나타나 이는 특정 개인의 글쓰기 습관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17) ‘筆者’로 쓰인 것이 4회, ‘필자’로 쓰인 것이 1회 나타났다.

18) 한편 <한글>에서 5회 쓰인 ‘筆者’는 네 명의 저자의 글에서, <정음>에서 3회 쓰인 ‘나’는 세 명의 서로 다른 저자의 글에 사용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첫째 가리킴 입자씨 중 ‘필자’는 오늘날까지도 학술적 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나머지 입자씨들은 학술적 글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오늘날 학술지에서의 입자말 사용 양상과 비교해 보면 100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의 큰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 2009년에 발행된 국어학 학술지에 실린 42편의 글에서 서론과 결론을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해 본 결과¹⁹⁾, 493개의 맞선 마디²⁰⁾ 가운데 첫째 가리킴의 대이름씨 등 저자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이름씨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단 저자 자신을 간접적으로 지칭하는 ‘이 글에서는’, ‘이 논문에서는’, ‘이 연구는’과 같은 표현이 28회(약 6%) 사용되었는데, 이는 1930년대 <한글>이나 <정음>에서는 볼 수 없던 표현이다²¹⁾.

입자말의 실현 양상으로 볼 때, 1930년대 학술지와 오늘날 학술지에 사용된 월의 문체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글의 표면에 저자가 얼마나 노출되는가, 다시 말해 저자의 생각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라고 생각한다’ 식의 기술 방법이 오늘날에는 ‘이 글에서는 ~에 대해 살펴본다’와 같은 기술 태도로 전환된 것이다. 이어서 풀이말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월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19) 이후 이 분석 자료는 <2009년학술지>로 지칭한다.

20) 앞서 언급한 대로 1차적으로 분석된 맞선마디를 의미하며, 어절 수로는 1,597 어절이다.

21) 단 ‘本稿’와 ‘本篇’의 예가 하나씩 나타났다.

예1) 本稿는 이로써 끝을 막거니와, <1932-한글002-이희승(끝)>

예2) 本篇은 尹致昊先生의 ‘한글新綴字法’ 論評에 對한 李允宰氏의 反駁 內容을 分析 批判하기 爲하야 쓰는 것이다. <1934-정음03-박승도(첫)>

4. 풀이말의 실현 양상

4.1. 풀이말의 분포상의 특징

<한글>과 <정음>으로부터 추출해 낸 풀이말은 토큰(token) 수로는 각각 768개, 568개이며²²⁾ 타입(type) 수로는 각각 256개, 248개이다²³⁾. (5)와 (6)은 두 말뭉치에 사용된 풀이말 중 평균 빈도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난 풀이말들, 즉 <한글>의 경우는 빈도 4 이상, <정음>은 빈도 3 이상의 풀이말들을 추려내어 빈도순으로 나열하고 괄호 안에 빈도를 표시한 것이다²⁴⁾.

(5) <한글>에서 평균 빈도 이상으로 쓰인 풀이말:

이다(107), 있다(62), 하다(49), 없다(33), 아니다(31), 되다(28),
말하다(26), 알다(16), 보다(14), 생각하다(13), 적다(動詞)(13),

22) 2.2에서 1차 분석 맞선 마디의 개수가 <한글>은 769개, <정음>은 574개라 하였는데, 이 개수와 풀이말의 토큰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임자말이나 풀이말이 없이 ‘나의 恭敬하는 諸氏여!’같이 쓰인 경우를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한글>에는 이러한 예가 1개, <정음>에는 6개 있었다.

23) 토큰 수를 타입 수로 나눈 값을 비교해 보면 <한글>은 3.0, <정음>은 2.3으로 하나의 풀이말이 평균적으로 사용된 빈도는 <한글>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빈도 1인 풀이말을 살펴보면 <한글>은 189개로 전체 풀이말 중 73.8%, <정음>은 199개로 전체 풀이말 중 80.2%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때 <한글>보다 <정음>의 경우가 좀 더 다양한 풀이말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4) <한글>의 경우 표에 나타난 25개의 풀이말들은 전체 256 종류의 풀이말 중 9.8%에 불과하며, <정음>의 경우 표에 제시된 27개의 풀이말은 전체 248개의 풀이말 중 10.9%에 불과하다. 그러나 두 표에 제시된 풀이말들의 총 빈도의 합이 전체 풀이말 빈도 중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한글>의 경우는 62.1%, <정음>의 경우는 57.2%로, 두 말뭉치에서 10% 남짓한 고빈도 풀이말들이 전체 용례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훌쩍 넘는 것이다.

많다(12), 쓰다(11), 가지다(9), 민다(7), 바라다(7), 그만두다(5), 만들다(5), 오다(5), 갈다(4), 나다(4), 들다(4), 들다(4), 마치다(4), 보이다(4).

(6) <정음>에서 평균 빈도 이상으로 쓰인 풀이말:

이다(90), 하다(51), 아니다(23), 없다(21), 있다(21), 되다(17), 알다(11), 보다(10), 말하다(8), 바라다(7), 가지다(6), 쓰다(6), 버리다(5), 취하다(5), 나오다(4), 많다(4), 모르다(4), 생각하다(4), 어렵다(4), 갈다(3), 고찰하다(3), 나아가다(3), 들다(3), 말다(3), 만다(3), 지나다(3), 출발하다(3).

(5)와 (6)의 밑줄 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두 학술지에 사용된 고빈도 풀이말의 목록은 대부분이 서로 겹친다. 고빈도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1~9위에 해당되는 풀이말의 목록이 동일하고, 특히 그 중 최상위에 해당되는 1~5위의 목록이 ‘이다,²⁵⁾ 아니다, 있다, 없다, 하다’로 일치한다. 다른 풀이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빈도로 나타난 풀이말은 잡음씨 ‘이다’로 두 말뭉치에서 각각 13.9%, 15.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한글>과 <정음>의 두 말뭉치에서 확인되는 분포상의 공통점은 당시의 학술적 글이 갖는 공통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5), (6)과 <2009년학술지>에 쓰인 풀이말 중 평균 빈도 이상 사용된 풀이말의 목록을 뽑아 비교해 보면 지난 80여 년간 학술지에 사용된 월의 문체적 특징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실감할 수 있다. (7)은 <2009년학술지>에서 빈도 3 이상의 풀이말을 빈도순으로 나열하고 괄호 안에 빈도를 기록한 것으로, (7)에서 밑줄 친 부분은 (5)나 (6)의 목록과 겹치는 풀이말이다.

25) ‘이다’의 문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접사, 조사, 접어, 계사, 형용사, 지정사’ 등의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 현배(1937)를 따라 ‘이다’를 풀이말의 일종인 잡음씨로 본다. 잡음씨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 현배(1937/1961 : 161, 182)를 참고.

- (7) 이다(55), 하다(24), 있다(22), 보다(19), 되다(10), 위하다(10), 보이다(8), 나타나다(8), 살피다(8), 아니다(8), 논의하다(8), 살펴보다(8), 분석하다(7), 제시하다(7), 파악하다(6), 가지다(6), 밝히다(6), 확인하다(6), 고려하다(5), 알다(5), 갈다(5), 많다(5), 없다(4), 나타내다(4), 설명하다(4), 해석하다(4), 쓰이다(4), 통하다(4), 높다(4), 받다(3), 바뀌다(3), 첨가되다(3), 변하다(3), 따르다(3), 바꾸다(3), 경험하다(3), 나누다(3), 두다(3), 반하다(3), 이루어지다(3), 증명하다(3), 얻다(3), 검토하다(3), 다루다(3), 설정하다(3), 기대하다(3).

(5), (6)과 (7)을 비교해 보면, (7)에만 포함되어 있는 풀이말들은 ‘논의하다, 분석하다, 파악하다, 증명하다, 설정하다’ 등과 같이 추상적 사고 과정을 나타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한글>과 <정음>에서는 고빈도로 나타났는데 <2009년학술지>에는 포함되지 않은 ‘적다, 쓰다, 말하다, 듣다’와 같은 풀이말은 구체적인 신체 부위와 관련된 지각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풀이말이다. 이렇게 1930년대와 2009년의 학술지에 사용된 고빈도 풀이말의 목록을 비교해 보면 눈에 보이는 신체 행위를 나타내는 풀이말에서 추상적 사고 과정을 나타내는 풀이말로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이어서 4.2절에서는 (5)와 (6)에 제시된 풀이말 개개의 쓰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4.2. 고빈도 풀이말의 사용 양상

4.2.1. ‘-음’ 임자마디와 풀이말

1930년대의 <한글>과 <정음>뿐 아니라 <2009년학술지>에도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된 풀이말은 지정사 ‘이다’이다. 그런데 ‘이다’의 용법을 살펴보면, 그 쓰임이 1930년대와 오늘날이 차이

를 보인다. 1930년대 ‘이다’의 용례 중 상당수는 (8)ㄱ, (8)ㄴ의 예에서와 같이 ‘-음’ 임자마디 뒤에 결합된 것이었다. 이런 쓰임은 오늘날의 학술적 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1930년대에 ‘-음’ 임자마디 뒤에 와서 월을 끝맺는 역할을 하는 풀이말에는 이 밖에도 ‘아니다, 있다, 없다’가 있었다.

- (8) ㄱ. 한번 쓰기를 시험해보지도 아니하고 또 알기를 힘써 보지도 아니하고, 다만 말성만 부리는 것들은 [아직도 우리글을 천대하는 더러운 습관이 남음]이요, <1934-한글015-이운재(끝)>
- ㄴ. 이제 [朝鮮語 文法을 몰른다 함]은 [곧 朝鮮語를 몰른다 함]이니 <1934-정음02-박승도(서)>
- ㄷ. 中流社會라고 하면 [中産階級을 말함]이 안이갓고 <1934-정음01-김창제(첫)>
- ㄹ. [여기에는 불만을 느끼게 함]이 많이 잇으나, <1932-한글003-김윤경(끝)>
- ㅁ. 諸氏は [聖人됨에 害함]이 업슬디니 <1934-정음04-무명(끝)>

(8)의 용례들은 모두 임자마디 내의 풀이말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 월을 끝맺을 수 있는 예들이다. 이를 굳이 임자마디로 쓰고 뒤에 ‘이다, 아니다, 있다, 없다’와 같은 풀이말을 쓴 것은 언해문의 전형적 문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중세국어 임자마디의 여러 유형 중 ‘-음’ 임자마디가 주를 이루었다는 점은 허 웅(1975, 1989, 1992), 채 완(1979), 홍 종선(1983), 고 영근(1987), 최 동주(1996) 등 여러 논의에서 언급된 바 있다. 또한 언해문의 문체 특징으로 ‘-음’ 임자마디의 빈번한 사용을 지적한 논의로는 김 미형(1997, 2005), 윤 용선(2003), 안 예리(2008)

등이 있다. 이들 논의에서 다루어진 중세국어의 ‘-음’ 임자마디의 쓰임은 수백 년 동안 문어체의 전통을 이루었으며 20세기 초기에도 학술적 글에서 여전히 그런 전통이 이어지는 면을 볼 수 있다.

4.2.2. 분열문을 이루는 풀이말

‘이다’가 사용된 구문 중 상당수는 (9)에 제시된 것과 같이 소위 분열문이나 의사 분열문으로 불리는 구조를 보인다²⁶⁾. (9)ㄱ, (9)ㄴ의 경우는 시간을 나타내는 어찌말로 쓰일 수 있는 이름씨가 잡음씨와 결합하여 풀이말로 쓰였으며, (9)ㄷ의 경우는 어찌씨가 잡음씨와 결합하여 풀이말로 쓰였다. (9) ㄷ~ㄴ은 부림말이나 임자말로 쓰일 수 있는 이름씨가 풀이말의 위치에 쓰인 예이다.

- (9) ㄱ. [이 사랑스러운 동무를 잃은 지도] 꽤 오래다. <1932-한글001-최현배(서)>
 ㄴ. [한글 연구의 길을 떠난 지도] 벌써 30년이요, <1932-한글001-이상춘(서)>
 ㄷ. [訓民正音은 世宗 大王의 創製한 것임은] 勿論입니다. <1932-한글005-김윤경(서)>
 ㄷ. [오직 여귀에 쓰고자 하는 바는] 近日에 問題 되야 잇는 記寫法 그것이다. <1934-정음02-박승도(서)>

26) 국어의 분열문은 그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되기보다는, 통사론 논의에서 문장 성분의 특성을 검증하는 기제로서 주로 활용되어 왔다. 남 길임(2006 : 349)에 따르면, “분열문을 주요 통사적 기제로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홍 재성(1987), 유 현경(1994), 김 영희(1998)”를 들 수 있다. 국어의 분열문에 대한 직접적 연구로서는 임 규홍(1986)과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남 길임(2006)을 들 수 있다. ‘분열문’과 ‘의사 분열문’의 경계는 학자들마다 견해차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남 길임(2006) 참조.

口. 그럼으로 [現下 우리 大衆의 一般的으로 切實히 要求하는 바는] 오직 言文의 整理와 統一 그것일 것이다. <1934-정음01-박승도(첫)>

ㄴ. [李朝 開國 以來 아주 年淺하야 모든 것이 草創時代의 域을 버شنا디 못아야할 時에 偉大한 抱負를 가지고 半島에 君臨하야 各種의 施設, 經營, 改革, 及 製作를 盛하게 하고 써 朝鮮의 基礎를 確立하는 同時에 東方 文化史上에 만흔 貢獻을 남기신 분은] 卽 이제 論코자 하는 世宗大王이다. <1934-정음04-병도(서)>

특히 (9) ㄴ~ㄴ을 보면 강조하고자 하는 이름씨를 ‘그것’으로 다시 지칭하거나, ‘卽’을 사용하여 강조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4.2.3. ‘없다’와 공기하는 어찌씨의 어순

‘없다’가 사용된 월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점은 ‘없다’와 공기하는 어찌씨의 위치이다. (10)의 예를 보면 ‘도무지, 도저히, 절대로’가 ‘없다’ 바로 앞에 나타났다. 오늘날의 모어 화자의 직관으로는 (10)의 예들 모두 어찌씨가 맨 앞에 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특히 (10) ㄴ~ㄴ과 같이 ‘~ㄴ 수 없다’의 양태 표현이 쓰인 경우 ‘수’와 ‘없다’ 사이에 어찌씨가 쓰이는 것은 현대의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인 쓰임이 아니다²⁷⁾.

27) 1,000만 어절의 <21세기세종계획균형말뭉치>에서 ‘도무지, 도저히, 절대로’가 ‘없다’와 함께 쓰인 용례들을 검색하여 월 내에서의 위치를 분석해 본 결과, ‘도무지’는 총 452개의 용례 중 1.3%에 해당되는 6개, ‘도저히’는 674개의 용례 중 1.6%인 11개, ‘절대로’는 537개의 용례 중 4.5%인 24개의 용례에서 ‘없다’ 바로 앞에 사용되었다. 그 중에 특히 ‘~ㄴ 수 없다’와 함께 쓰였을 때의 위치를 살펴보면, ‘도무지’는 전체 148개 용례 중 0.7%인 한 예, ‘도저히’는 437개 용례 중 2.1%인 9개, ‘절대로’는 98개 중 6.1%인 6개 용례에서 ‘수’와 ‘없다’ 사이에 나타났다

- (10) ㄱ. 깊이 따지고 견주어 보고 생각하여 불 만한 여유가 도무지 없었습니다. <1932-한글003-김윤경(결)>
 ㄴ. 우리말이 모잘라서 術語를 못 찾을 念慮가 도모지 없는 것입니다. <1932-한글004-과학술어와우리말(서)>
 ㄷ. 이 적은 지면으로는 화랑도(花郎道)의 윤부(輪部)만도 제대로 그릴 수는 도저히 없으므로, <1934-한글013-박노철(서)>
 ㄹ. 그 以上の 한글式으로 고터 가라칠 勇氣를 나할 수는 絶對로 업고 <1934-정음04-김희(끝)>
 ㅁ. 글이 먼저 될 수는 絶對로 이룰 수 업는 일이다. <1934-정음03-권영중(첫)>
 ㅂ. 言語를 習得하는 兒童의 말을 標準 자볼 수는 到底히 업습니다. <1934-정음01-김창제(첫)>

이러한 어순이 학술적 글의 특징인지 당시의 일반적인 쓰임 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1930년대 소설 117편의 표본으로 이루어진 130만 어절의 말뭉치에서 ‘도무지, 절대로, 도저히’의 쓰임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도무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같은 시기라도 소설에서는 (11) ㄱ~ㄷ과 같이 [NP-가 없다] 전체에 선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예에서 (11)ㄹ과 같이 ‘NP-가’와 ‘없다’ 사이에 나타난다. ‘도무지’와 ‘없다’가 같이 쓰인 총 88개의 월에서 이 어찌씨가 ‘없다’에 직접 선행한 예는 8개에 불과했다.

- (11) ㄱ. 부모에게 효성있고 동기간에 우애있고 백사에 도모지 나루랄 것이 없는데 …… <1933고향,254>
 ㄴ. 타작논을 부치는 사람들은 도모지 수확이 없는 모양이

다. 이처럼 현대국어에서 이들 어찌씨는 ‘없다’에 직접 선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세 어찌씨 중에 ‘절대로’는 다른 두 어찌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없다’ 바로 앞에 쓰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다. <1933고향,235>

ㄷ. 나도 인선이 죽은 뒤로는 도무지 의탁할 곳이 없고, <1932
흙,36>

ㄹ. 내가 안해 방에 가 볼 기회가 도무지 없었다. <1936날
개,030>

‘도무지’와 ‘없다’가 함께 쓰인 88개의 용례 중에 특히 ‘~ㄹ 수 없다’와 함께 쓰인 용례를 찾아 분석해 본 결과, 총 49개의 용례 중 단 한 예(2%)에서만 (12)ㄱ과 같이 어찌씨가 ‘수’와 ‘없다’ 사이에 나타났고 나머지 모든 용례에서는 (12)ㄴ~ㄹ과 같이 ‘~ㄹ 수 없다’ 전체에 선행하여 나타났다. 이처럼 ‘도무지’의 경우 당대의 소설에서는 오늘날의 용법이 정착되어 있었고 학술지와 소설에서의 용법이 서로 달랐다.

(12) ㄱ. 어렵다느니 보다 차라리 될 수가 도무지 없는 일이었다.
<1938무영탑,302>

ㄴ. 도모지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1936모림,294>

ㄷ. 언삼은 도모지 잘 수가 없었다. <1936졸곡제,02>

ㄹ. 그러나 안해는 도모지 그것을 알아내일 수가 업섯습니
다. <1933사흘끓은봄달,152>

이어서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도저히’에 대해 살펴보면, ‘도저히’와 ‘없다’가 공기한 91개의 용례 중 ‘도저히’가 ‘없다’ 바로 앞에 쓰인 용례는 15개였다. 한편 ‘도저히’가 ‘~ㄹ 수 없다’와 함께 쓰인 용례는 전부 74개로 그 중 약 16%에 해당되는 12개의 예에서 (13)과 같이 ‘도저히’가 ‘수’와 ‘없다’ 사이에 나타났다. 이는 ‘도무지’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13) ㄱ. 청석골 와서 몇 가지 시작한 사업 중에, 가장 의미 깊고

성적이 좋은 한글 강습을 중도에서 손을 뗄 수는 도저히 없었다. <1936상록수,170>

ㄴ. 그렇게 볼 수는 도저히 없었다. <1933운현궁의봄,327>

ㄷ. 약혼자의 생사 때문에 미친 듯한 이 정열의 처녀의 마음을 누를 수는 도저히 없었다. <1930젊은그들,318>

ㄹ. 그 소식을 듣고도 시골에 주저 앉아 있을 수는 도저히 없었다. <1933영원의미소,203>

한편 ‘절대로’의 경우에는 ‘없다’와 함께 쓰인 예가 12개로 위의 두 어찌씨와 비교해 볼 때 용례 수가 매우 적다. 이 중 4개의 예에서 (14) ㄱ, ㄴ과 같이 ‘절대로’가 ‘없다’에 직접 선행하였다. 12개의 용례 중 ‘절대로’가 ‘~ㄹ 수 없다’와 함께 쓰인 예는 3개로, (14)ㄷ에 제시된 것처럼 그 중 한 예에서 ‘절대로’가 ‘수’와 ‘없다’ 사이에 나타났다.

(14) ㄱ. 그 호소에 얼마만치라도 동정하여 줄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1933운현궁의봄,140>

ㄴ. 수표를 하여 준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1935흑풍,177>

ㄷ. 그렇다고 경호는 그대로 있을 수는 절대로 없다. <1933고향,171>

이처럼 <한글>, <정음>과 동시대의 소설 말뭉치를 비교해 볼 때, ‘도무지, 도저히, 절대로’가 ‘없다’에 직접 선행하는 쓰임은 학술지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것이었던 반면, 소설에서는 일부 용례에서 확인되긴 하지만 전형적 쓰임은 아니었다.

4.2.4. 이중 부정

앞 절에서 살펴본 개개 풀이말의 용법상의 특징 외에도 눈에 띄는 점은 이중 부정이다. 여기서 이중 부정이란 ‘아니되다, 안

되다, 아니하다, 앓다, 아니다, 없다, 못하다, 말다'의 부정 표현이 둘 이상 나타나 부정에 대해 또 다시 부정을 함으로써 오히려 강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한글>에서는 17회, <정음>에서는 8회의 이중 부정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한글>에서는 매우 다양한 유형이 관찰되는 반면 <정음>은 특정한 유형에 용례들이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15), (16)은 각각 <한글>과 <정음>에서 관찰되는 이중 부정 표현들의 유형과 유형별 사용 빈도를 보여준다.

- (15) ㄱ. <한글>에 사용된 이중 부정 표현: 총 17회, 13 유형
 ~지 않으면 아니되다(2), ~지 않으면 안되다(1), ~지 아니하면 안되다(1), ~지 아니하면 아니되다(1), ~이 없음이 아니다(2), ~이 없는 것이 아니다(1), ~이 없지 않다(2), ~이 없지 아니하다(2), ~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1), ~이 아니치 못하다(1), ~을 말지 않다(1), ~을 마지 않다(1), ~지 못한 것이 ~지 못할 ~이다(1).

- (16) ㄴ. <정음>에 사용된 이중 부정 표현: 총 8회, 4 유형
 ~지 않으면 아니되다(1), ~이 아님이 없다(1), ~을 마오디 아니하다(5), ~지 아니할 ~가 없다(1).

<한글>에서 2회 이상 나타난 이중 부형의 다섯 가지 유형과 <정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을 마오디 아니하다'의 예를 보이면 (17), (18)과 같다. 특히 (17)에 제시된 『정음』의 예를 보면, 대개의 쓰임이 '~을 마오디 아니하는 바이다'였다. 이러한 이중 부정 표현을 보이는 5개의 용례가 4명의 서로 다른 저자의 글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특정 개인의 어투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17) ㄱ. 그 整理와 改正을 計劃치 않으면 아니 될 것이지만은,

<1932-한글003-이갑(결)>

ㄴ. 그러나, 연구자들이 뜻이 없음도 아니었고, <1932-한글 001-이상춘(서)>

ㄷ. 그 原著者의 眞意를 理解하기에 괴로운 끝이 없지 않다. <1932-한글001-김선기(서)>

ㄹ. 이미 잇는 좋은 文字로써 綴字 整理나 하자는 것두 잘못 行하는 우리 조선 사람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깊은 느낌이 없지 아니할 것이다. <1932-한글003-이극로(서)>

ㅁ. 그것을 볼 때에 慨嘆함을 말지 않는 바다. <1932-한글 001-이호성(서)>

(18) ㄱ. 다만 모든 人士의 冷情한 深思를 기다려서 마으디 아니 하는 바이다. <1934-정음02-이궁중(끝)>

ㄴ. 그이를 繼承한 諸氏가 記寫法 整理 統一에 不絶한 努力을 함에 對하여 나는 우리 言文을 爲하여 大衆을 爲하여 우리러 恭敬하며 사랑함을 마으디 아니하는 바이다. <1934-정음01-박승도(첫)>

ㄷ. 그러나 筆者는 이 글을 씀에 즈음하여 자못 躊躇함을 마으디 아니 하노니 <1934-정음02-박승도(서)>

ㄹ. 僕은 諸氏를 爲하여 가만히 恐懼함을 마으디 안는 바이다. <1934-정음04-무명(끝)>

ㅁ. 그 信念으로서 조금도 꺼리짐 업시 自取할 바의 길을 嚴然히 取함에 이슬 것을 미더 마으디 아니하는 바이다. <1934-정음04-권영중(끝)>

앞서 언급한 1930년대 소설 말뭉치에서 (15), (16)의 이중 부정 표현들을 찾아보면, <한글>에서 사용된 여러 유형들은 소설 말뭉치에서도 용례가 많이 나타나는 반면, <정음>에서 쓰인 이중 부정의 표현들은 소설 말뭉치에서는 거의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1930년대 소설 말뭉치 전체 130만 어절 중에 ‘~지 않으면 안되다’가 136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 없지 않다’가 131회, ‘~지 아니하면 안되다’가 44회, ‘~이 없지 아니하

다'가 30회, '∼을 마지 않다'가 23회 쓰였다.²⁸⁾ 『정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을 마오디 아니하다'는 소설 말뭉치에서는 한 예도 나타나지 않았고, '∼지 않으면 아니되다'만 한 예가 발견되었을 뿐 <정음>에서 사용된 나머지 이중 부정 표현들도 모두 용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동시대의 소설과 학술지를 비교해 볼 때 『한글』은 소설에서도 널리 쓰인 이중 부정 표현들을 사용한 반면, 『정음』은 소설에는 쓰이지 않는 이중 부정 표현들을 주로 사용했다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5. 메타 술어로 쓰인 풀이말

5.1. 기술 행위 자체를 나타내는 메타 술어

<한글>과 <정음>에 쓰인 고빈도 풀이말 중에는 학술적 글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메타 술어로서의 쓰임이 주목되는 풀이말들이 있다. 그리고 이 메타 술어의 쓰임을 관찰해 보면, 오늘날 학술적 글에서 사용하는 메타 술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오늘날은 흔히 '살펴보다, 고찰하다, 설명하다, 해석하다, 증명하다, 검토하다, 기술하다, 주장하다' 등으로 표현하는 '저자가 글을 쓰는 행위'에 대해 1930년대 두 학술지에서는 주로 '말하다, 적다'를 사용하였다. (19)는 '말하다'의 예를,²⁹⁾ (20)은 '적

28) 그 밖에도 1930년대 소설 말뭉치에서는 '∼지 아니하면 안되다'가 8회, '∼지 않으면 아니되다'가 6회, '∼지 아니치 못하다'가 4회, '∼이 없음이 아니다'가 3회, '∼을 말지 않다'가 2회, '∼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가 1회 사용되었다.

29) '말하다' 외에도 '하다'가 '말하다'의 의미로 쓰인 경우도 메타 언어로서의 쓰임을 보인다.

예1) 그리하여, 여러 가지 말의 첫머리로서 금번은 '우리말본의 기억

다’의 예를 보여준다. ‘말하다’와 ‘적다’ 모두 대부분 논의를 시작하면서 연구의 목적을 기술할 때에 사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다’와 ‘적다’는 모두 씨끝 ‘-려, -려고, -고자’와 결합한 경우가 많다.

- (19) ㄱ. 그러므로, 나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말의 씨가름을 말하려고 한다. <1932-한글001-최현배(서)>
 ㄴ. 또 이 밖에, 한글 운동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1932-한글003-김윤경(끝)>
 ㄷ. 이 적은 論文으로 ‘된시옷의 제바탕’이 무엇인 것을 말하여 보려고 하였다. <1933-한글009-김선기(결)>
 ㄹ. 現在 繼續 中인 이 事業의 一端을 말하고자 한다. <1934-정음02-편집자(서)>
 (20) ㄱ. 그러므로 다시 한번 ‘ㅎ’바침이 음리상(音理上)으로도 맞고 문법정리상(文法整理上)으로도 간편하며 조금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극히 간단히 적어보려 한다. <1934-한글015-이희승(첫)>
 ㄴ. 이제 간단히 그 重要한 것을 적어 보려 합니다. <1932-한글005-김윤경(서)>
 ㄷ. 責任上 그것에 對하여 두어 마디 저그려 한다. <1934-정음03-정규창(첫)>

‘말하다’의 용례 중 <한글>의 경우는 총 26개 용례 중에 22개가 메타 술어로 쓰였고, <정음>의 경우는 총 8개의 용례 중 6개가 메타 술어로 사용되었다. 또한 ‘적다’는 <한글>에서 총 13

니은’ 곳 조선문법의 入門을 간단히 몇 마디 하려고 한다. <1932-한글001-최현배(서)>

예2) 여기에 대하여는 우리가 때대로 그를 접촉하는 경험으로도 밝히 아는 것이므로 여러 말을 하지 아니한다. <1934-한글011-역명006(첫)>

개 용례 중 10개, <정음>에서는 총 2개 용례 모두가 메타 술어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말하다’와 ‘적다’가 학술적 글에 사용될 경우 거의 대부분의 용례에서 메타 술어로서의 쓰임이 확인된다.³⁰⁾

학술적인 글을 쓰는 과정에서 추상적인 개념어보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풀이말을 사용한 것, 특히 글쓰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말하다’를 사용한 것은, 당시 글쓰기 행위에 전제된 관점을 짐작케 한다. 즉 글이라는 매개물을 중간에 놓지 않고 마치 저자와 독자가 직접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것처럼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자를 나타내는 임자씨들이 월에 직접 드러났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6절에서 살펴볼 월의 종류나 씨끝, 존대법의 사용 양상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5.2. 논의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메타 술어

논의의 시작 부분에서 특별히 관찰되는 점은 (19)와 같이 ‘(붓을) 잡다, 들다’가 논의를 시작하는 대목에서 메타 술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³¹⁾

- (21) ㄱ. 실제로 해보려고 붓을 잡은즉, <1934-한글012-최현배(서)>
 ㄴ. 이러한 立場에서, 나의 薄見賤識을 무릅쓰고, 大膽히 붓을 든 것이다. <1932-한글002-이호성(첫)>

30) 한편 ‘적다’와 의미가 유사한 ‘쓰다’의 경우는 <한글>의 11개 용례 중 1개, <정음>의 6개 용례 중 1개만이 메타 언어로서의 쓰임을 보였다.

31) 한편, 저자의 우려를 ‘붓에서 땀이 난다’고 표현한 용례도 보인다.
 예) 스사로 民衆과 社會에 對한 責任感과 悚懼한 생각으로 붓에서 땀이 남을 께다를 지경이다. <1934-정음02-정규창(결)>

그런 한편 논의를 끝맺을 때 주로 사용되던 메타 술어는 글 쓰기의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직접적으로 글을 끝내는 행위를 나타낼 때에는 ‘그만두다’, ‘그치다’가 사용되었는데 주로 <한글>에 실린 글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³²⁾.

- (22) ㄱ. 여기에 그것을 말할 시간이 없고, 또 조치가 이미 많아진
고로 그만두겠습니다. <1932-한글003-김윤경(끝)>
ㄴ. 더 조사하여 외래어를 다 모아서 열후에 다시 한번 말하
기로 하고 그만둔다. <1934-한글013-긴급동의033(끝)>
ㄷ. 지면 관계로 이만 그친다. <1934-한글015-이희승(끝)>
ㄹ. 말씀은 여기에 그치겠습니다. <1932-한글006-이병기(끝)>

앞서 살펴본 ‘(붓을) 들다, 잡다’와 대응되는 경우로 (23) ㄱ, ㄴ 처럼 논의를 마칠 때 ‘(붓을) 놓다, 던지다’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한글>에서 발견되며, (23)ㄷ처럼 ‘끝을 막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 (23) ㄱ. 끝으로 이 小論이 全體에 있어, 理論에 맞지 못함이 있고, 內容이 성긴 것을 부그리며 붓을 놓는다. <1932-한글003-김선기(결)>
ㄴ. 끝으로 朴勝彬氏의 ‘ㄸ’字 使用의 根本的 見解를 說明하야 주기를 바라며 붓을 던진다. <1933-한글009-김선기(결)>
ㄷ. 本稿는 이로써 끝을 막거니와, <1932-한글002-이희승(끝)>

둘째로, 글을 마치는 행위를 직접 묘사하는 풀이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자에게 주장을 좀 더 강하게 호소하는 느

32) <정음>에는 ‘그만두다’의 용례가 없고, ‘그치다’는 한 예가 발견되지만 메타 언어로 사용된 예가 아니었다.

김풀의 월이 사용되거나 시킴풀의 월로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경우가 있었고, 소수이지만 수사적 용법의 물음풀의 월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24)와 같이 느낌풀의 월로 글을 끝맺는 경우는 <정음>에서 주로 발견되는 방식이었다. 이때에는 특별히 고정적으로 쓰이는 풀이말은 눈에 띄지 않았다.

(24) ㄱ. 나아갈디어다! 나의 사랑하는 諸氏여! <1934-정음01-박승도(끝)>

ㄴ. 社會人士여 좀더 慎重한 考慮를 이에 앓기디 마르쇼서! <1934-정음02-정규창(결)>

ㄷ. 이제야 우리 朝鮮 速記界에는 바라든 첫답이 날개치고 운다고 할는디! <1934-정음05-강준원(끝)>

셋째로, 기대나 희망을 나타내는 ‘바라다, 믿다’와 같은 풀이씨들을 사용하여 논의를 끝맺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이는 <한글>과 <정음>에서 모두 확인된다.

(25) ㄱ. 실용에 편리한 가장 합리적(合理的) 기사법이 나오기를 바란다. <1934-한글014-부질없는수작062(서)>

ㄴ. 앞으로도 몇 해는 더 희생하여야 原稿를 作成하며, 印刷가 되어서, 우리의 目的하는 標準 辭典이 世上에 나오리라고 믿는다. <1932-한글001-이극로(결)>

ㄷ. 모든 朝鮮人士는 이에 關하여 좀 더 眞摯한 向意와 慎重한 態度를 갖기를 바란다. <1934-정음02-이금중(끝)>

5.3. 저자의 의견을 나타내는 메타 술어

저자의 의견을 개진할 때 주로 쓰인 메타 술어는 ‘보다, 생각하다’가 있었다. 이 두 풀이씨의 용법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학술적 글에서 ‘헤지(hedge)’로서의 두 풀이씨의 용법

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학술적 글의 주된 특성 중 하나로 ‘헤지 표현’의 빈번한 사용을 들 수 있다. 헤지는 레이코프(G. Lakoff 1972)에서³³⁾ ‘sort of’와 같이 어떤 문장의 참과 거짓을 모호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제기된 것으로, 언어 표현의 정도를 약화시킴으로써 단정적인 인상을 피하고 명제 내용을 모호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국어의 학술적 글에 대한 분석에 이를 도입한 연구로 심 은숙(2006), 신 명선(2006)이 있다. 이 두 논의를 살펴보면 국어의 학술적 글에 사용된 헤지 표현에는 ‘~중의 하나이다’, ‘~ㄴ 것 같다’ 등의 표현, 피동이나 간접 인용, 부사 ‘좀, 아마도, 거의, 비교적, 그리’ 등이 있다. 학술적 글에서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는 이유는 강한 어조의 단언을 피함으로써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헤지 표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오늘날 학술적 글에서 ‘보다, 생각하다’는 흔히 ‘~로 보인다, ~라고 생각된다’에서처럼 피동형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1930년대 <한글>과 <정음>에서는 모두 능동형으로만 사용된 점이 주목된다³⁴⁾. (26)은 ‘보다’의 예, (27)은 ‘생각하다’의 예를 나타낸다.

(26) ㄱ. 그러나, 그런 것을 거듭소리로 보지는 아니한다. <1932-한글004-이극로(서)>

ㄴ. ‘한글마춤법통일안’의 總論에 標準말을 大體로 (一) 現在

33) 레이코프(G. Lakoff 1972), “Hedges: A Study in Meaning Criteria and the Logic of Fuzzy Concepts,”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2. 458~508쪽.

34) <한글>에는 ‘보이다’가 4회 출현하는데 이때는 모두 사동의 의미로 쓰였다.

中流社會에서 쓰는 서울말로 쓰자는 데에 이서서 좀 慎重히 生覺할 問題이라고 봅니다. <1934-정음01-김창제(첫)>

(27) ㄱ. 나는 한글 글씨의 體法을 찾는 同時에, 이와 같은 모든 文字를 發見한 것을 매우 유쾌하게 생각한다. <1932-한글001-김극배(끝)>

ㄴ. 그럼으로 筆者는 ‘한글마춤법통일안’이라기보담 차라리 ‘한글마춤법뒤죽박죽안’이라는 것이 妥當할 줄로 생각한다. <1934-정음01-임규(끝)>

‘XX하다’와 ‘XX되다’의 대응쌍이 성립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글> 및 <정음>과 <2009년학술지>를 비교해 보면 피동형의 해지 표현 사용 양상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한글>의 경우는 전체 풀이말 256개 중 5%인 13개(28ㄱ)가, <정음>은 248개 풀이말 중 4.8%인 12개(28ㄴ)가 ‘XX되다’형이었다. 그런 한편 <2009년학술지>에서는 전체 풀이말 187개 중에 18.7%인 35개(28ㄷ)가 ‘XX되다’형이었다.

(28) ㄱ. <한글> 공명되다, 구체화되다, 발표되다, 보급되다, 사용되다, 설명되다, 실시되다, 제정되다, 진전되다, 출한되다, 출현되다, 해결되다, 해되다.

ㄴ. <정음> 국한되다, 발견되다, 사용되다, 생각되다, 수궁되다, 반포되다, 위촉되다, 인정되다, 제정되다, 좌우되다, 통일되다, 허용되다.

ㄷ. <2009학술지> 설명되다, 구분되다, 전개되다, 제시되다, 시작되다, 집중되다, 논의되다, 분석되다, 유지되다, 추론되다, 확인되다, 완성되다, 적용되다, 사용되다, 결정되다, 관련되다, 제작되다, 예상되다, 반영되다, 기술되다, 포함되다, 도출되다, 구상되다, 대별되다, 구별되다, 대비되다, 설정되다, 판단되다, 생각되다, 발견되다, 전제되다, 파악되다, 구성되다, 배치되다, 나열되다.

이러한 메타 술어의 사용 양상을 종합해 보면, 1930년대의 학술적 글에서는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주장을 완곡하게 만드는 해지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필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맺음씨끝의 실현 양상

<한글>과 <정음>으로부터 추출해 낸 맺음씨끝은 토큰(token) 수로는 각각 767개, 568개이고, 타입(type)수로는 97개, 84개이다³⁵⁾. 이번 장에서는 <한글>과 <정음>에서 추출된 맺음씨끝 중 마침법의 씨끝을 다시 말하는 이와 듣는 이와 사이의 주고받는 관계에 따라 ‘배품꼴/물음꼴/시킴꼴/찌임꼴’³⁶⁾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듣는 사람을 높이는 정도에 따라 ‘아주낮춤/예사낮춤/예사높임/아주높임’으로 등분하여, 그 분포상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한글>은 1934년 4월호의 글 ‘편집 내용 변경에 대하여’에서, “한글의 종래의 편집 내용을 바꾸어, 될 수 있는 데까지 통속을 주장하여, 누구라도 한글을 자유로 학습하며 실제로 응용하기에

35) 씨끝을 추출하고 분석함에 있어, 동형어 구분을 위하여 『표준 국어 대사전』의 동형어 분류 번호를 따랐다. <한글>의 씨끝의 토큰(token) 수가 풀이말의 토큰 수 768개보다 한 개가 적은 이유는, <1933-한글 009-김선기(서)>의 마지막 문장 ‘마치 形而上界의 事實이나 되는듯이.’ 때문이다.

36) 이른바 ‘감탄형’으로 불리는 ‘느낌꼴(感動形)’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최 현배(1937)의 씨끝 체계를 따른 것으로, 최 현배(1937)에서는 ‘느낌꼴(感動形)’을 배품꼴의 한 가지로 보고 있다. 최 현배(1937 : 265)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는 (1) 느낌을 나타낸 이른바 느낌꼴의 일이 아니라 배품꼴로도 나타낼 수 있으며, (2) 느낌꼴 역시 배품꼴과 마찬가지로 남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때 쓰일 수 있고, (3) 느낌꼴과 배품꼴이 모두 제 홀로 말할 적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편리하도록 힘써서, 일반 대중의 요구에 응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정음>에 비해 <한글>이 일반 대중에게 더 다가가고자 했던 학술지였음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글>이 그 독자를 지식인뿐 아니라 일반 대중으로 폭넓게 상정하고 있던 만큼, 맺음씨끝 사용 양상에 있어서도 <정음>과는 다른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6.1. 배품꼴 씨끝의 사용 양상

<한글>과 <정음>에서 관찰된 배품꼴 맺음씨끝의 토큰 수는 각각 420개, 242개이고, 타입 수는 12, 18개이다. 토큰 수를 타입 수로 나눈 값을 비교해 보면 <한글>은 35, <정음>은 13.4로, 하나의 배품꼴 씨끝이 평균적으로 사용된 빈도는 <한글>이 <정음>에 비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음>에서 더 다양한 형태의 씨끝이 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두 학술지에 나타난 배품꼴 맺음씨끝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³⁷⁾.

<표 1> 배품꼴 맺음씨끝의 분포

체계	맺음씨끝 목록	<한글>	(%)	<정음>	(%)
아주 낮춤	는다01, 니다01	7	1.7	37	15.3
	다07	345	82.1	158	65.3
	라08	1	0.2	7	2.9
	노라03	2	0.5	2	0.8
	느니라	1	0.2	0	0.0
	니라	1	0.2	0	0.0
	도다	1	0.2	1	0.4
	로다01	0	0.0	1	0.4

37) 어간의 종성에 따라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음운론적 이형태들은 함께 묶어 제시하였다.

	으리로다01	0	0.0	1	0.4
	을디어다	0	0.0	2	0.8
	란다	0	0.0	1	0.4
	르는다	0	0.0	1	0.4
	리라03,으리라	2	0.5	1	0.4
	리오02	0	0.0	1	0.4
	리17	2	0.5	0	0.0
	라01	1	0.2	2	0.8
예사 높임	오19	0	0.0	16	6.6
	야요	0	0.0	1	0.4
	을시다	0	0.0	1	0.4
	외다05	2	0.5	0	0.0
	으리오01	0	0.0	1	0.4
아주 높임	습니다,읍니다,비니다	55	13.1	8	3.3
베품꼴 맺음씨끝 합계		420	100	242	100

베품꼴의 아주낮춤의 씨끝 ‘-다07’과 ‘-라08’는 ‘20세기 초기에 진행된 언문일치 현상’과 관련하여 김 미형(2005), 김 형철(1997), 심 재기(1999) 등에서 논의가 되어 왔다. 이 두 씨끝의 <한글>과 <정음>에서의 실현 양상을 보면, ‘-다07’의 경우 <한글>에서 82.1%, <정음>에서 65.3%의 실현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라08’의 경우는 <한글>에서는 0.2%에 그치는 반면, <정음>에서는 3.3%로 더 사용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높임의 베품꼴 씨끝의 분포의 경우는 <한글>에서는 전체 베품꼴 씨끝 중 예사높임이 0.5%였던 반면, <정음>에서는 예사높임이 7.8% 나타나, 예사높임의 베품꼴 씨끝은 <한글>보다 <정음>에서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주높임의 베품꼴 씨끝의 경우는 <정음>에서는 3.3% 실현에 그치는 반면, <한글>에서는 13.1%로 <정음>보다 <한글>에서 더

빈번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주높임의 맺음씨끝은 (29) ㄱ, ㄴ의 예문에서처럼 ‘여러분, 독자’ 등으로 독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29) ㄷ~ㅍ의 예문에서처럼 독자와 대면하고 말을 하듯이 글을 쓰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 (29) ㄱ. 이 術語를 버려적기 前에 讀者에게 알릴 일이 몇가지 있습니다. <1932-한글004-안호상(서)>
ㄴ. 보시는 여러분은, 많은 疑問을 가지실 줄로 민습니다. <1932-한글001-최현배(끝)>
ㄷ. 그 내용은 이러한 것이엇습니다. <1932-한글003-김윤경(첫)>
ㄹ. 말씀은 여기에 그치겟습니다. <1932-한글006-이병기(끝)>
ㅁ. 이제 본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선말본에 쓴 쓰는말(用語)에 대하여 잠간 먼저 말하려 합니다. <1933-한글011-최현배(서)>

한편 <한글>과 <정음>에서 공통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노라, -느니라, -도다’와 같은 어미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오늘날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³⁸⁾

- (30) ㄱ. 余의 揣摩的 考定案의 徒勞에 도라감을 바라노라. <1934-정음04-박승빈(끝)>
ㄴ. 대저 아는것이 흠족한 연후에 말하는것처럼 가장 현명한 사람은 없느니라. <1934-한글011-부질없는수작015(끝)>
ㄷ. 그 意氣인즉 壯하지마는, 그 學問의 體系인즉 바르지 못하도다. <1933-한글008-최현배(결)>

38) 마침법의 맺음씨끝에서뿐만 아니라 이음법의 맺음씨끝에서도 오늘날은 잘 쓰이지 않는 ‘-거니와, -판대08, -ㄴ고01, -노니03’ 등의 사용이 확인된다.

6.2. 물음꼴 맺음씨끝의 사용 양상

<한글>과 <정음>에서의 물음꼴 맺음씨끝의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 (31) ㄱ. <한글> 아주 낮춤 씨끝: 나12(1), 느냐(1), 으랴01(1).
 <한글> 예사낮춤 씨끝: ㄴ가01/는가/은가02(10), ㄹ가/을가/ㄹ까(3), ㄴ고01(1), 을고(1).
 ㄴ. <정음> 아주 낮춤: 나12(1), 냐/으냐(3), 으랴01(5).
 <정음> 예사낮춤: ㄴ가01/는가/은가02(8), ㄹ가/을가/ㄹ까(3), 든가03(2), 을고(1).

물음꼴 씨끝은 <한글>과 <정음>에서 모두 ‘ㄴ가01, 는가, 은가02’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ㄹ가, 을가, ㄹ까’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한글>과 <정음> 모두 (32)의 예문에서와 같이, 자기 혹은 타인의 주장 및 비판하고자 하는 현실에 대해 반문하거나, 주제 도입 차원에서 독자에게 물음을 던지는 형태의 물음꼴을 사용하였다.

- (32) ㄱ. 이 貴重한 文字가 發見되기 前에 우리 祖上들은 朝鮮말을 표기코자 할 적에 무엇으로 어찌케 셋든가? <1934-정음01-문시혁(서)>
 ㄴ. 그러면 우리가 왜 漢文을 버리디 안나? <1934-정음01-고명우(끝)>
 ㄷ. 그러면 먼저 速記란 무엇이나? <1934-정음05-강준원(첫)>
 ㄹ. 조선사람이 조선말을 얼마나 아는가? <1932-한글002-최현배(첫)>

6.3. 시킴꼴과 띄임꼴 맺음씨끝의 사용 양상

‘시킴꼴 씨끝’은 <한글>의 경우 6번, <정음>의 경우는 5번

출현하였는데, <한글>은 ‘-라09’가 4번, ‘-으라01’과 ‘-어라01’이 각각 1번씩 출현하였으며, <정음>은 ‘라09’와 ‘으라01’가 2번씩, 아주높임의 씨끝 ‘쇼셔’가 1번 출현하였다. 반면 학술적 글에 나타난 ‘피임꿀 씨끝’은 <한글>과 <정음> 모두 ‘자27’ 한 가지로 <한글>에서 6번, <정음>에서는 1번 출현하였다.

시킴월과 피임월은 오늘날의 일반적 학술적 글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월의 유형으로³⁹⁾ 배품월에 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의견 표현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3)은 독자에게 (34)는 상대 학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시킴월의 용례이고, (35)는 독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고 권하는 피임월의 용례이다. 이러한 맺음씨끝의 사용 양상은 5.1절에서 이미 언급한 저자와 독자가 직접 만나서 의견을 나누듯이 글을 전개해 나가는 글쓰기의 특징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 (33) ㄱ. 그리하여 이강산 삼천리의 방방곡곡에 당신들의 지나간 발자취를 남기어라. <1934-한글014-김병제(끝)>
 ㄴ. 누구 혼자 바꾸일 수 없이 온전히 닦아놓은 길에, 다른 사람이 모여들기를 바라지 말라. <1932-한글001-이만규(끝)>
 (34) ㄱ. 그리고 이 안보다 더 나은 체게 있는 안을 내어놓으라. <1934-한글013-이희승(끝)>
 ㄴ. 그리고 자중(自重)하라. <1934-한글013-부절없는수작046(끝)>
 (35) ㄱ. 平易通俗한 우리 글을 特殊 學者에 局限시기디 말자. <1934-정음02-김인식(끝)>
 ㄴ. 우리 민중은 이제 이 통일안을 실행하기에 힘을 일치하자. <1934-한글012-한글마춤법통일안실행에일치하자017(끝)>

39) <2009년 학술지>에서 분석된 전체 493개의 씨끝은 290개의 맺음씨끝과 203개의 이음씨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290의 맺음씨끝을 분석해 본 결과, 282개의 배품꿀 씨끝과 8개의 물음꿀 씨끝만이 나타났지만, 시킴꿀과 피임꿀 씨끝은 나타나지 않았다.

ㄷ. 우리는 뜻을 모아 길을 가려고, 함께 닭아 나가기를 힘쓰
자. <1932-한글001-이만규(끝)>

7. 결론

지금까지 말뭉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글』과 『정음』에 사용된 월의 문체적 특성을 임자말, 풀이말, 맺음씨끝의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임자말의 경우 저자 자신을 가리키는 첫째 가리킴의 임자씨의 사용이 특징적이었으며, 구체적인 임자씨의 목록에 있어서는 두 학술지에서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풀이말의 사용 양상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본 뒤 고빈도 풀이말들 개개의 사용 양상을 논의하였으며, 글을 전개해 나가는 데 필요한 메타 술어의 쓰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이중 부정의 잦은 쓰임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두 학술지 간의 차이점을 기술하였으며 맺음씨끝의 사용 양상에 대해 월의 형식과 높임 등분에 따라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는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1930년대의 학술지라는 특정 사용역에서의 월의 문체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한글』과 『정음』 각각의 특징적 양상을 분석함과 동시에, 두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같은 시대의 소설 자료에 나타난 월의 문체적 특성과 비교함으로써 그것이 특정 텍스트 양식에 따른 것인지 당시의 일반적인 양상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1930년대의 학술적 글, 특히 논설문에 사용된 월의 문체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는 당대 학술적 글의 일면만을 보여줄 뿐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 하겠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국어 연구라

는 특정한 분야의 학술적 글에 한정된 분석이므로 당대의 학술적 글의 전반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글들을 분석하여 종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동시대의 소설이나 교과서, 신문 기사 등 다른 텍스트 유형에 사용된 월의 특성과의 비교하는 것 역시 남겨진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학술적 텍스트라는 장르에 한정해 놓고 볼 때에도, 그 이후의 학술적 글들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월의 변화를 겪었는가 하는 점 역시 앞으로 탐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 고 영근. 1987.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김 근수. 1973. 『한국 잡지 개관 및 호별 목차집』. 한국학연구소.
- 김 미형. 1997. 「언해문의 문체 특징 연구」, 어문학연구 6. 상명대학교 어문학연구소. 35~55쪽.
- 김 미형. 2002. 「논설문 문체의 변천 연구」, 한말연구 11. 한말연구학회. 23~71쪽.
- 김 미형. 2005. 『우리말의 어제와 오늘—정신의 변화를 안고 흐른 국어의 역사—』. 제이앤씨.
- 김 석득. 1983. 『우리말 연구사』. 정음문화사.
- 김 영희. 1998. 『한국어 통사론을 위한 논의』. 한국문화사.
- 김 지영. 2006. 「학문적 글쓰기의 근대적 전환—구한말 학회보의 ‘학해’ 면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7. 323~360쪽.
- 김 형철. 1997. 『개화기 국어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 김 홍수. 1993. 「국어 문체의 통사적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31. 한국언어문학회. 83~101쪽.
- 남 길임. 2006. 「말뭉치 기반 국어 분석론 연구」, 형태론 8-2. 박이정. 339~360쪽.

- 레이코프(G. Lakoff). 1972. 'Hedges: A Study in Meaning Criteria and the Logic of Fuzzy Concepts',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2. 458~508쪽.
- 문 혜윤. 2008. 『문학어의 근대-조선어로 글을 쓴다는 것』. 소명출판.
- 민 현식. 2002. 「개화기 국어 변화의 계량적 이해」, *한국어문학연구* 39. 한국어문학연구학회. 47~80쪽.
- 서 상규·한 영균. 1999. 『국어정보학 입문』. 태학사.
- 신 명선. 2006. 「국어 학술 텍스트에 드러난 헤지(Hedge) 표현에 대한 연구」, *배달말* 38. 151~180쪽.
- 심 은숙. 2006. 「Hedging Strategies in Scientific Research Texts」, *영어영문학연구* 47-4.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197~220쪽.
- 심 재기. 1999. 『국어 문체 변천사』. 집문당.
- 안 예리. 2008ㄱ. 「형용사 파생접미사의 어기 공유 현상」, *형태론* 10-1. 박이정. 63~83쪽.
- 안 예리. 2008ㄴ. 「현대국어 초기 명사질의 사용 양상」, *한글* 281. 한글학회. 255~281쪽.
- 유 현경. 1986. 「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 191, 77~104쪽.
- 임 규홍. 1986. 「국어 분열문에 관한 연구」, *어문학* 48. 155~175쪽.
- 채 완. 1979. 「명사화소 '-기'에 대하여」, *국어학* 8. 국어학회. 95~107쪽.
- 최 동주. 1996. 「중세 국어 문법」(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1—중세국어). 국립국어연구원.
- 최 석재. 2000. 「개화기 시대 이후 단문화의 과정」(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 3—문체·어휘·표기법). 박이정. 31~55쪽.
- 최 현배. 1937/196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허 웅. 1975. 『우리 옛말본—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 허 웅. 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 웅. 1992. 『15·16세기 우리 옛말본의 역사』. 탐출판사.
- 허 웅. 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

홍 종선. 1983. 「명사화 어미의 변천」, 국어국문 89. 국어국문학회. 3
1~52쪽.

홍 재성. 1987.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의 연구』. 탑출판사.

안 예리

420-70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꿈동산 신안아파트 1907동 1204호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누리편지: cherryyelee@hanmail.net

김 선영

157-755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대림아파트 108동 903호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누리편지: seon0127@hotmail.com

<abstract>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Academic Journals in the 1930s: Focusing on <Han-geul> and <Jeong-eum>

An Ye-lee, Kim Seon-yeong

This article focuses on the writing styles of the sentences used in the Korean academic journals, <Han-geul> and <Jeong-eum>, published in the 1930's. We especially focus on the syntactic characteristics which determined the writing styles of those journals. We applied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on <Academic journal corpus>, which consists of introduction and conclusion of <Han-geul> and <Jeong-eum>. We analyzed syntactic factors as follows:

- A. Subject nouns: *na*, *uri*, *pon'go*, ellipsis forms, etc
- B. Frequently used predicates
- C. Meta-predicate
- D. Sentence type: declarative, imperative, exclamatory, suggesting and interrogative sentences

We discussed the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these journals by comparing them with those in novels at the contemporary and recent academic journals. Furthermore, by contrasting the two academic journals, we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yntactic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these academic journals.

* Key words: *Han-geul*, *Jeong-eum*, Academic Journals, Writing style, Sentence Structure, 1930's.

<논문 받은 날: 2009. 8. 30.>

<논문 심사한 날: 1차/2009. 10. 29.~11. 21, 2차/11. 25.~12. 10.>

<실기로 한 날: 2009. 12. 11.>